

[e갤러리] 45세 요절 천재화가의 色·筆...최욱경 '성난 여인'

September 19, 2016 | 오현주 기자

1966년 작

한국현대미술 주류서 벗어난 추상표현주의 화가

강렬한 원색 대담한 붓질로 조형언어 실험·도전

배경·그림 모호하던 1960년대 초기 경향 작품



최욱경 '성난 여인'(사진=국제갤러리)

'나는 추상표현주의를 염두에 두면서도 형체를 찾아내려 했다.' 추상화가 최욱경(1940~1985)에게 '추상'은 이중적이었나 보다. 즉흥적인 표현은 자유로웠지만 이면에 밀려드는 허무감도 적잖았던 듯. 그림에도 강렬한 원색과 대담한 붓질로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만드는 실험은 멈추질 않았다. '성난 여인'(La femme fache.1966)은 배경과 그림이 모호하던 초기 경향의 작품. 하지만 이후 콜라주로 '형체' 찾는 일에 심취하고, 단청·민화 등 한국색채에도 눈을 돌린다. 하지만 너무 앞선 탓인가. 한국현대미술이 채 알아보기도 전, 마흔다섯에 심장마비로 요절한 비운의 작가가 되고 말았다.

10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아메리칸 시절 1960~1970년대'에서 볼 수 있다. 캔버스에 유채. 137×174cm. 작가 소장. 국제갤러리 제공.